

낚시·골프...지금은 ‘취미 예능’ 시대

채널A ‘도시어부’ 편견 깨고 인기 몰이
SBS골프 ‘스타워즈...골프가 간다’ 눈길
스타들 이색 취미 활동...시청자들 공감

스타들의 취미활동에 시청자들이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가족이 등장하거나, 여행을 떠나고, 음식을 다룬 ‘먹방’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았던 TV예능프로그램이 스타들의 취미를 소재로 삼으면서 가져온 변화이다. 스타들의 하루일과 등 단순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인’으로서 연예 활동이 아닌 다른 분야에 열중하는 모습에 시청자는 신선함을 느끼고,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에겐 높은 공감을 얻는다.

시청자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움직인 주인공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도시어부)이다. 연예계 베테랑 이덕화, 이경규, 래퍼 마이크로닷이 출연하는 ‘도시어부’는 세 사람이 전국 각지의 바다를 찾아다니며 낚시를 즐기는 내용이다. 낚시가 주요 소

재여서 재미를 느끼는 시청자층이 한정적이고, 왁자지껄 떠드는 야생 버라이어티에 익숙한 시청자들이 심심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도시어부’는 낚시질 자체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낚싯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통해 소소한 재미와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해낸다. 자극적이고 작위적인 설정, 억지로 감동을 이끌어내는 설정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독설가’ ‘수다쟁이’ 등의 이미지로 알려진 이경규의 진지한 모습이 색다르게 다가간다.

12일 첫 방송한 케이블채널 SBS골프 ‘스타워즈-골프가 간다’는 골프가 소재다. 개그맨 남희석, 방송인 김일중, 연기자 이태성이 진행자로 나서 아마추어 골프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골프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은 골프프로그램의 전문성에 오락성이 더해진 콘텐츠에 공감과 재미를 느낀다. 골프 경력 10년차 남희석을 비롯해 게스트들의 숨은 골프 실력을 보는 것도 재미를 주는 요소다.

스타들의 다양한 취미생활을 들여다보는 예



이경규(왼쪽)와 마이크로닷의 낚시 취미를 담은 ‘도시어부’는 대표적인 ‘취미 예능프로그램’이다.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출연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신선한 흥미를 자아낸다. 사진제공 | 채널A

능프로그램도 대가하고 있다. 11월 방송 예정인 SBS ‘살짝 미쳐다 좋아’(살미도)는 스타들이 평소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을 관찰 카메라 형태로 보여준다. 걸그룹 AOA 지민은 패션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도시어부’의 장시원 연출자는 “누구나 자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는 스타도 마찬가지”라며 “스타의 이색 취미 활동에 시청자가 재미를 느끼며, 같은 취미를 지닌 시청자와는 공감도를 높이길 바랐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인 지갑 ‘620만원 vs 20억원’

(배우 연 평균 수입)

톱가수 연평균 43억...톱배우는 20억
상위 1% 수입이 전체 절반 안팎 차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 1%의 수입이 전체 연예계의 절반을 넘거나 그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10명 가운데 1명이 전체 90%에 가깝거나 이를 넘는 수입을 차지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월 소득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예계 수입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을 신고한 배우(1만5870명)의 연 평균 수입은 4200만원. 하지만 수입 상위 1%(158명)는 평균 20억

800만원을 벌었다. 이들이 전체 수입의 47.3%를 차지했다. 이들을 제외한 90%(1만4283명)의 연 평균 수입은 620만원이었다. 또 배우 10명 가운데 9명의 한 달 평균 수입은 52만원에 그쳤다.

가수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수입 상위 1%(56명)는 연 평균 42억6400만원을 벌어들였다. 전체(4667명) 수입의 52%나 된다. 모델 상위 1%(82명) 역시 연 평균 5억4400만원으로, 전체(8210명)의 48%를 차지했다.

이들 수입 상위 10%로 확대해도 마찬가지. 배우(1587명)의 연 평균 수입은 3억6700만원

으로, 전체의 86.8%에 달했다. 가수도 10%(466명)가 7억3200만원으로, 전체의 9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90%는 연 평균 870만원에 머물렀다. 모델 10%(821명)는 연 평균 8900만원을 벌어들이며 전체의 78.8% 수입을 얻었지만, 하위 90%는 270만에 불과했다.

남녀간 격차도 컸다. 남자배우는 연 평균 4700만원이었지만, 여성배우는 3700만원이었다. 가수의 경우는 격차가 더욱 커서 남성 1억1200만원으로 여성(4000만원)의 2.8배에 달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뜨거운 ‘사랑의 온도’ 멜로로 꽃핀 김재욱

멜로 최적화...새 영화 ‘나비잠’도 주목



김재욱

배우 김재욱이 멜로로 연기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다. 여성 팬들의 시선도 그를 향한다.

SBS 월화드라마 ‘사랑의 온도’에 출연중인 김재욱은 오랜만에 몸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은 듯한 매력적인 연기로 배우로서 역량을 드러낸다. 특히 멜로 장르에 최적화한 모습

은 ‘새로운 발견’이라는 호평도 이끌어낸다. 김재욱은 서현진, 양세종과 더불어 ‘사랑의 온도’를 이끄는 주인공이다. 무척대고 마음만 앞서는 인물이 아닌, 노련하고 여유 있게 자신의 사랑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무르익은 연기력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김재욱의 멜로 연기는 드라마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일 합작영화 ‘나비잠’에서 역시 슬픈 러브스토리를 그린다. 영화는 진행중인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부문에서 처음 소개돼 웰메이드 멜로로 주목받고 있다.

‘나비잠’에서 김재욱의 상대역은 일본배우 나카야마 미호. 영화 ‘러브레터’로 국내 관객에게도 익숙한 배우로, 두 사람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연인으로 이야기를 이끈다. 탁월한 일본어 실력을 갖춘 김재욱은 언어의 장벽 없이 영화에 녹아들었다.

정상급 배우이지만 한국 배우와의 작업은 처음인 나카야마 미호는 “김재욱은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배우”라며 “그의 열정에 답하려 더 노력했다”고 말했다.

패션모델로 데뷔한 김재욱은 2007년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10여년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오다 최근 멜로 장르에 특화한 자신의 매력을 내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김재욱은 4인조 밴드 월러스의 멤버로 활동하며 두 장의 음반을 발표했고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도 오르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연예현장.jpg



패션도 마마무! 4인조 걸그룹 마마무가 17일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2018 헤라 서울패션위크의 패션쇼에 참석했다. 무대에서 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은 패션쇼 객석에서도 멤버 각각의 매력이 돋보이는 감각적인 패션을 뽐냈다. 디자인은 다르지만 블랙과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 세련된 멋을 냈다. 왼쪽부터 문별, 솔라, 휘인, 화사. 김진환 기자 kwangshin@donga.com

‘하트 뽕뽕’ 마마무

다숨만? 보라도 도전...씨스타 출신 연기 대결

tvN ‘화유기’로 3년 만에 본격 연기

걸그룹 씨스타 출신의 보라가 연기자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17일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보라는 12월 방송 예정인 케이블채널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에 옥룡 역할로 출연한다. 캐릭터는 시늉 시스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로 분량은 많지 않지만 화제의 드라마인 만큼 그의 도전에는 눈길이 모아진다.

보라는 5월 7년간 몸담았던 씨스타를 떠나 연기자 변신을 선언하고, 연기 활동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이서진 이승기 등이 소속된 후크엔터테인먼트로 옮겼다. 그 첫 번째 작품이 ‘화유기’이다. ‘연기자 보라’는 첫 작품부터 든든한 지원 속에서 자신의 연기를 선보이게 됐다.

‘화유기’는 고대소설 ‘서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로맨티 판타지 드라마로 차승

원 이승기 오연서 등이 출연한다. 2011년 MBC ‘최고의 사랑’에서 호흡한 홍자매 작가·박흥균 PD 등 제작진도 화려하다. 보라는 4월 촬영을 마친 영화 ‘썬크리스 패밀러’로 스크린 신고식도 앞두고 있다.

보라는 씨스타 활동중이던 2014년 SBS ‘닥터 이상인’에서 탈북자 역으로 연기를 처음 경험했다. 당시 역적스러운 생활력과 북한 사투리 설정을 무난하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아부쟁이 압!’ ‘고품격 짝사랑’ ‘아리시 어퍼컷’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 실력을 온전히 연기자로서 보여주는 무대가 ‘화유기’인 셈이다.

보라의 연기도전으로 최근 종영한 SBS ‘연니는 살아있다’에서 악역 연기로 시청자의 눈도장을 받은 다숨과의 선의의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숨이 이미 성과를 냈기에 보라의 활약에도 자연스레 시선이 집중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보라

숫자뉴스

20만 9620장

그룹 뉴이스트W 새 앨범의 발

매 첫주 음반판매량이다. 17일 음반판매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10일 발표된 뉴이스트W ‘더블유, 히어’는 이 같은 초동 판매량을 기록했다. 직전 앨범인 뉴이스트 다섯번째 미니앨범 ‘캔버스’ 초동 판매량 300장의 약 350배에 달하는 수치다.

#해시태그 킷



‘원조요정’ 성유리의 발레교실

연기자 성유리가 원조 요정다운 매력을 뽐낸다. 발레로 몸매 관리를 하고 있는 성유리는 바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리를 치켜 올려 균형을 잡고 있다. 무릎의 굽힘없이 다리를 쭉 펴고 있는 모습이 전문 발레리나 못지않다. 힘들어하는 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머리까지 닿는 그날까지”라는 성유리의 각오에 팬들은 “예술”이라고 환호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포드 #성유리 #발레리나 #원조요정 #자기관리

이 노래

9 김성재 ‘말하자면’

단 한 번의 무대만 남기고 우릴 떠나가 버린 김성재



김성재의 솔로 데뷔곡 ‘말하자면’의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 사진출처 | 유튜브화면 캡처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고 김광석의 죽음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사인이 뒤늦게 조망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을 통해 자살로 결론 났지만, 일각에서는 끊임 없이 의문을 던진다. 서른두 살, 젊은 가수의 죽음에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었다.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혹제기는, 가요계의 대표적인 ‘의문의 죽음’으로 남은 또 다른 요정가수를 떠오르게 한다. 듀스 출신 김성재다. 그는 단 한 장의 음반, 단 한 번의 무대를 남기고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다.

서태지와 아이들보다 1년 늦게 데뷔해 90년대 아이돌 댄스그룹의 열풍을 이끈 듀스 김성재는 1995년 6월 팀 해체 후 5개월 후인 그해 11월 19일 첫 솔로앨범을 발표하고, 당일 SBS ‘생방송 TV가요 20’(현 ‘인기가요’)에 출연했다. ‘김백 스페셜’로 꾸며진 첫 솔로무대에서 그는 아이스하키 장갑을 낀 채 인상 깊은 퍼포먼스와 함께 ‘말하자면’을 불렀다. 감격적인 솔로데뷔를 마치고 당시 속소였던 서울 흥은동 한 호텔로 돌아갔고, 이튿날 아침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숙소에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가 졸레틸을 사갔다는 동물병원장 진술에 그녀가 살인혐의로 구속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그녀가 구입한 졸레틸 양이 치사량에 못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성재가 유일무이한 무대를 선보인 ‘말하자면’은 듀스의 열창선에 있는 열매한 댄스곡이다. 솔로 데뷔곡으로 불렸지만, 고인의 유일한 솔로음반이자 유작의 타이틀곡은 ‘사랑, 두려움’이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